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자족하는 마음

[딤후 6:1]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 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종은 종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종의 위치는 ‘자기 주인을 범사에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종의 위치이다. 물론 주인은 종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며 배려해야 한다. 종이 믿는 성도인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오히려 주인에게 더 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주인을 더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 그 제도의 폐지는 오랜 세월을 요했다. 그러나 사실,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본문의 교훈은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범사에 존경하며 그의 지시를 즐거이 순종해야 한다.

[2] 믿는 상전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주인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성도인 종은 자기의 주인이 믿는 성도일 경우 그를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직장에서나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물론이고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로마서 12: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3-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회기아인) [건전한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에(KJV, NASB)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훼방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전통본문).

본문은 ‘바른 말’과 ‘다른 교훈’을 대조시킨다. 바른 말은 건전하고 유익한 말이다. 바른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하신 말씀이나 경건에 일치하는 교훈 즉 경건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의 사상과 교훈은 성경적으로 바르고 경건한 사상과 교훈이어야 한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에 생각을 두지 않는 자는 교만하며 무지하고 싸움을 일으킨다. 그는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남을 비방하고 다투다고 본문은 표현한다. 그는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즉 사욕(私慾)을 품은 자이다. 싸움은 결국 사람의 욕심에서 발생한다. 야고보도 말하기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욕심]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하였다(약 4:1-2).

바울은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첨가하여 말했다. 교제의 문제는 중요하다. 악은 누룩처럼 퍼진다. 악을 용인하며 악한 자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물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훈을 저버리고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땅의 것을 탐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악한 자들은 우리의 전도와 권면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

[6-8절] 그러나 지족(知足)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분명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못할 것임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족(知足)한다는 것은 욕심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상적 마음가짐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사도 바울은 이미

4:8에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증거하였었다.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것은 악하고 헛된 일이지만, 자족하는 참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는 경건한 성도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영생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성도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그가 출생 시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별세 시 역시 분명히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무덤에 묻힐 때 이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을 가져갈 수 없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며 백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덜 가진 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가진 자 즉 부자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적고 덜 가진 자 즉 가난한 자가 믿음에 부요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관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탐욕을 품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 잠언 30:8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하였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도의 삶은 경건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요약된다. 경건과 자족함—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생활 원리이다.

**[9절]** [그러나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욕망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경건하고 자족하는 삶과 대조하여, 이 세상에는 부하려 하는 자들이 많다. 부하려는 마음 즉 무엇을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심이다. 이런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며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 부하려는 마음, 즉 탐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신자도 예외가 아니다.

**[10절]** [이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됴미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 파멸케 되는 이유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 탐심과 돈 사랑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야고보서 1:15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말하였다. 오늘날에도 사회의 크고 작은 죄악들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공직자 부정부패도, 여성들의 윤락행위도, 사람의 납치나 살해 사건도 보통 돈 사랑에서 비롯된다. 돈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지!

특히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르게 된다. 탐심은 돈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숭배이기 때문에(골 3:5)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함께 있을 수 없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다(마 6:24).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 이것은 오늘날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도 적용된다.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존경하고 도우며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물론,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공정하게 다스리며 배려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7-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떠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는 우리의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며 살아야 하며 여기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나온다.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9-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렀도다.” 마태복음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

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성막, 띠, 휘장**

본장은 성막과 그 덮개들과 널판과 띠와, 또 지성소의 문 휘장과 성소의 문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들 지시하신 말씀이다.

[출 26:1-6] 너는 성막을 만들되 양쟁(휘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테키텔) [보라색] 자색(자주색) 홍색(주홍색)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 . . .

하나님께서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휘장 열 폭을 가늘게 꼰 베실과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라고 하셨다.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은 피의 색깔을 상징하는 것 같다. 휘장은 매 폭의 길이가 28규빗 즉 약 12.6미터(1규빗은 약 45cm임), 너비는 4규빗 즉 약 1.8미터로 하고 그와 똑같은 휘장 다섯을 서로 잇고 다른 휘장 다섯을 또 서로 잇는다. 그러면 길이는 28규빗이며 너비는 20규빗인 큰 휘장이 두 개가 된다. 각 휘장의 끝에 보라색 고리 5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 성막 휘장은 길이가 40규빗 즉 약 18미터이며, 너비가 28규빗 즉 약 12.6미터가 된다. 성막이 너비가 10규빗, 길이가 30규빗, 높이가 10규빗이기 때문에, 성막 휘장은 좌우로 바닥에서 1규빗 높고 앞면에는 위에서 1규빗쯤 내려온다고 보인다.

[7-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양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 한 폭을 만들지며 . . . .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아마, 돌고래)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성막을 덮는 막들로 먼저 염소털로 덮는 막을 만들어야 했다.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즉 13.5미터이며 너비가 4규빗 즉 약 1.8미터인 열한 개의 휘장을 만들어, 다섯 폭을 서로 잇고 또 여섯 폭을 서로 이어야 했다. 여섯째 폭의 절반은 성막 앞면에 접어 내리고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뒷면에 내리게 하였다. 또 그는 연결할 휘장 끝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청동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면 염소털로 만든 덮는 막은 길이가 44규빗 즉 약 19.8미터이며, 너비가 30규빗 즉 약 13.5미터가 된다. 덮는 막은 좌우로는 성막 널판과 휘장을 다 덮고 전면으로는 2규빗(약 90센티미터) 내려오고 바닥에서는 8규빗(약 3.6미터) 높다고 보인다.

그 다음은 붉은 물들인 숫양 가죽으로 덮는 막을 또 만들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해달 혹은 아마 돌고래의

가죽으로 맨위에 덮을 막을 또 만들어야 했다. 이와 같이, 성막의 덮개는 삼중이었다. 첫째는 염소털로 만든 것이며, 둘째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며, 셋째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것이었다.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였다고 보인다.

[15-2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 . . .

하나님께서서는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즉 약 4.5미터, 너비는 1규빗 반 즉 약 67.5센티미터로 하고 각 판에 두 축(tenon, 장부)씩 내어 서로 연결하라고 지시하셨다. 남쪽과 북쪽을 위해 각각 널판 20개를 만들고, 각 널판에 은반침 2개씩, 도합 40개를 만들게 하셨다. 각 판은 옆으로 두 축씩 만들어 서로 연결했고 또 널판 아래에도 두 축씩 내어 은반침에 끼게 했다고 보인다. 성막 뒤(서쪽)를 위해서는 널판 여섯을 만들고 양쪽 모퉁이를 위해 또 널판 둘을 더 만들어 두 겹 두께로 하게 하였고 또 그 널판 여덟을 위해 은반침 열 여섯을 만들게 하셨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는 30규빗(약 13.5미터), 너비는 약 10규빗(약 4.5미터), 높이는 10규빗(약 4.5미터)이었다고 본다.

[26-30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널판을 연결할 띠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아카시아 나무로 띠를 만들되, 성막의 북쪽과 남쪽의 널판들을 위해 각각 다섯 개씩을 만들고 성막의 뒷쪽 즉 서쪽의 널판들을 위해 역시 다섯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중간 띠는 이끝에서 저끝까지 미치게 하라고 하셨다. 이 중간띠는 성막 전체를 하나로 묶게 된다. 또 그는 그 모든 널판을 금으로 싸게 하였고 그 널판들의 띠를 켈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말씀하셨다.

[31-33절] 너는 청색(보라색) 자색(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쟁(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반침 위에 들지며 그 쟁(휘장)을 갈고리 아래 드리운 후에 증거대를 그 쟁(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쟁(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그는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을 공교히 수놓고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

에 내리라고 지시하셨다. 또 그 네 기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두라고 하셨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였고 증거레는 그 휘장 안에 들여놓게 하셨다.

[34-37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레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같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다섯을 놋[청동]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지성소의 증거레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떡상을, 남쪽에 등대를 놓게 하셨다. 성막문 즉 성소 문도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짜게 하셨고 그 휘장을 위해 기둥 다섯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싸게 하셨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하였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함을 보인다. 구약의 성막은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어졌고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었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 휘장도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실로 만들었다. 그것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했다고 본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속죄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한다.

둘째로, 성막의 입구 곧 성소 입구와 지성소 입구에는 휘장이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휘장을 여셨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었다(마 27:51). 히브리서 10:19-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의 이름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셋째로, 성막은 널판들과 덮는 덮개들과 한 띠로 연결되어 있었다. 온 세계 교회는 하나다.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12-14,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빌립보서 2: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매는 띠로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한다.

## 수요일 설교 **참 하나님을 섬기라**

[사 40:18-31]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만 들었고 장색[금장색, 금 세공인]이 금으로 입혔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놋쇠나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힌 우상들은 아무 생명이 없다. 우리는 제사와 차례도 헛되고 죄악된 우상숭배임을 알아야 한다. 또 돈 사랑과 인간 숭배와 쾌락 사랑도 헛되다. 우리는 우상 숭배가 죄악됨을 알고 모든 종류의 우상숭배를 버려야 한다. 우리는 돈 사랑, 인간 숭배, 쾌락 사랑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참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하고 영생도 주지 못한다.

둘째로, 우리는 태초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한다. 그는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며, 피곤치 않으시는 자이시다.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셨다. 그는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과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과 3일 만에 자기의 무덤을 비우신 그의 초자연적 부활로 자신을 증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고 순종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날마다 섭리자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으로 피곤해졌고 낙심했으나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한다.

- 김효성, **조직신학**, 2판, 627쪽.
- 김효성, **로마서 강해**, 3판, 145쪽.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10판, 96쪽.
- 김효성, **기독교 윤리**, 6판, 240쪽.
- 김효성, **현대교회문제**, 6판, 204쪽.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44쪽.

★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 또한 이념적 안정을 위해,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 기도합니다.